

# 金代 漢族 官僚 起用의 特徵과 變化\*

- 宰執 집단의 분석을 중심으로 -

윤 욱\*\*

## Ⅰ 국문초록

본 글에서는 金代 漢族 宰執의 총수를 조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漢族 宰執의 출신, 경력 및 역할의 변화를 검토했다. 金代 漢族 宰執의 총수는 44명이었다. 출신을 본다면 金の 건국에 참여했던 燕雲 출신이 章宗 때까지 두드러지게 많았다. 南征을 위해 北宋 명문가 출신을 중용했던 海陵王代는 예외였다. 衛紹王시기 이후 눈에 띄게 燕雲 출신이 급감하고 북송의 故地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몽골이 金을 침략하여 燕雲 지역을 장악하자 燕雲의 한인 엘리트들이 적극적으로 몽골의 화북 정벌에 동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漢族 宰執의 경력은 世宗 시기를 전후하여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世宗 이전의 漢族 宰執은 주로 宋, 遼의 관료출신으로 여진 엘리트들이 생소한 조정 의례나 외교상의 의전 방면의 전문가이거나 한지를 경영하던 行臺尙書省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世宗 이후부터는 宰執에 임명되는 사람들의 경력이 정형화되는 경향이 등장했다. 金이 설치한 과거의 進士 출신으로서 尙書省에서 令史와 司官으로 근무하면서 황제 및 宰執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주로 宰執에 임명되었다. 또한 金조의 통치자들은 국민의 대다수를 점할 뿐만 아니라 제국의 세원이기도한 漢族의 민생 문제에 밝은 戶部 출신이나 재정전문가들을 宰執에 기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漢族 관원들은 宰執에 임명된 이후에도 민생과 재정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주제어] 金, 한족, 재집, 상서성, 연운

## Ⅰ. 서론 : 한족 재집 분석의 필요성

金は 국초부터 과거제를 시행하고 한족을 적극적으로 기용했을 뿐만 아니라, 元好問, 王若虛 등 문장으로 이름 높은 한족 사대부를 배출한 바 있었다. 이 때문에 金에서 활동한 한족, 특히 사인, 관료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개별 연구 이외에도 金대 한족의 “漢人”, “南人”의 분류, 한족에 대한 민족정책, 한족 사대부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0-기획연구-24).

\*\* 부산대 사학과 부교수 / manchu86@daum.net

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 한족 사대부의 심리상태, 한족 진사의 지역적 분포, 한족 관료 간의 당쟁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p>1)</sup> 최근에는 한족 관료의 출사와 상벌, 승진과 강등, 사회적, 경제적, 학문적 배경 등 관료로서의 경험 전반을 다룸으로서 한족 관료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sup>2)</sup>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종종 한족 관료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금조의 통치자가 선호했던 한족 관료의 조건이나 경력, 황제가 기대했던 한족 관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부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필자는 금대 관원들에 관해 가장 상세한 전기를 신고 있는 『金史』<sup>3)</sup>의 자료를 토대로 熙宗 대에서 금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금 조정에서 한족 관원을 대표하는 집단이자 황제가 가장 신임하는 한족 관원이라고 할 수 있는 宰相과 執政을 일컫는 “宰執”으로 활동했던 한족 관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대상의 축소와 관찰의 집중은 금조 전 시기에 걸쳐서 최고위 관료로 선발되는 한족 관원의 출신, 출세 경로 및 경력과 금 조정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시대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 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금대 한족 재집의 출신, 경력이나 역할에 관해서는 금대 재상제도의 연구나 한족 관료의 분석에서도 이미 행해지고 있다.<sup>4)</sup>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금대 한족 재집의 총수, 각 조대별 한족 재집의 숫자, 한족 재상이 임명되기 전의 경력 등 한족 재집과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와 조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잘못된 통계에 입각한 부정확한 해석을 도출해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착오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본 글은 먼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한족 재집의 범위와 총수를 한정하고, 그 다음 출신지역의 추이를 검토한 후에 재집이 되기까지 한족 관리들이 거치는 경력의 변천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족 재집의 역할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적할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정복왕조론의 입장에서 금조의 한족 기용정책이 갖는 의의를 짚어 보고자 한다.

1) 금 통치하 한족 가운데 燕雲 출신의 漢族과 北宋 故地 출신의 漢族의 구별에 관한 지적은 張中政, 「漢兒, 簽軍與金朝的民族等級」, 『社會科學輯刊』, 26기, 1983년 제3기. 금조의 민족정책과 한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는 劉浦江, 「金朝的民族政策與民族歧視」, 『歷史研究』, 1996년, 제3기; 劉浦江, 「說“漢人”- 遼金時代民族融合的一個側面」, 『民族研究』, 1998년 제6기 등. 금 치하의 하북에 남은 한족 사대부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沈圓圓, 「選擇之後- 金朝南人文士的心靈世界」(山東大學 碩士論文, 2018), 한족 사대부들의 지역적 분포는 陳昭揚, 「金代漢族土人的地域分布- 以政治參與為中心的考察」, 『漢學研究』 제26권 제1기 (2008.3) 등에서 다루어졌다. 陶晉生, 「金代的政治衝突」,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第43本 1分(1971)은 금조에 출사했던 한족 관원들 간의 당쟁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2)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연구로는 陳昭揚, 「征服王朝下的土人- 金代漢族土人的政治, 社會, 文化論析」(臺灣: 國立清華大學 歷史研究所 博士學位論文, 2007); 王德朋, 『金代漢族土人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등이 있다.

3)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이상규 교수 등이 번역한 『國譯 金史』(단국대학교출판부, 2016)로부터 얻은 도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다만, 百衲本을 저본으로 한 『金史』(北京: 中華書局, 1975)가 널리 통용되고 있으므로 인용할 때는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金史』와 『國譯 金史』를 대조하고 『金史』의 페이지 수를 기입했다.

4) 陳昭揚, 「征服王朝下的土人- 金代漢族土人的政治, 社會, 文化論析」; 孫孝偉, 「金朝宰相制度研究」(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侯震, 『金末漢人宰執研究』(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등.

## II. 한족 宰執의 수량적 고찰

금대의 宰執은 尙書省에 속한 고위관원들로서 宰相과 그들을 보좌하는 執政을 통칭한다. 금은 熙宗 즉위 년인 天會 13년(1135)에 중앙에 尙書, 中書, 門下省 등三省과 六部가 설치되었다. 당시 비록三省이 설치되긴 했지만 실제상으로는 尙書省을 중심으로 한 一省制이어서 門下省의 우두머리인 侍中은 상서성 左丞相이, 中書省의 수장인 中書令은 상서성 右丞相이 겸직했다.<sup>5)</sup> 그리고 이 시점을 전후하여 宰執으로 불리는 尙書省의 장관들이 임명되었다. 1년 전인 天會 12년(1134) 燕京에서 漢地를 관장하던 韓企先을 尙書右丞相으로 임명하고 上京으로 불러들였고 熙宗이 즉위한 직후 宗磐을 尙書令에 임명하고, 天會 13년(1135) 3월 完顏希尹을 尙書左丞相 兼 侍中, 高慶裔와 蕭慶을 각각 左丞과 右丞에 임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完顏奕이 平章政事, 天眷 元年(1138)에는 李德固가 參知政事로 임명되었다.<sup>6)</sup> 宰執의 구성은 정1품의 尙書令 1인, 종1품의 左丞相과 右丞相 각1인, 平章政事 2인, 정2품의 左丞과 右丞 각1인, 종2품의 參知政事 2인을 포함했다.<sup>7)</sup> 海陵王 정릉 원년에 平章政事が 폐지되기도 했으나 世宗 즉위 후 다시 회복되었다.<sup>8)</sup>

금대 임명되었던 전체 宰執의 숫자나 한족 宰執의 숫자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三上次男은 각 조대에서 宰執을 역임한 관원을 합하면 그 숫자는 131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한족 宰執의 숫자는 43명으로 간주했다.<sup>9)</sup> 하지만 三上次男이 한족 宰執으로 지목했던 사람은 실제로는 다른 민족이거나 宰執이 아닌 경우도 있다.<sup>10)</sup> 뿐만 아니라 哀宗 시기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황제의 재위 기간의 재상을 독립적으로 계산하였다. 만일 한 사람이 兩朝를 섬긴 경우에는 두 사람으로 계산했다. 張博泉은 熙宗 대에서 금말까지 “宰相(執政 포함)의 숫자가 총 158명이고 이 가운데 여진족 재상이 101명, 한족 재상이 40명, 기타 발해, 해, 거란족이 17명을 차지한다고 계산했다.<sup>11)</sup> 그 역시 각 조대별로 宰執의 숫자를 계산했다. 三上次男이나 張博泉의 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재집의 숫자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인명이나 이들이 속한 민족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sup>12)</sup>

5) 海陵王 代인 正隆 원년(1157)에는 중서, 문하 양성을 폐지하고 尙書省이 명실상부하게 유일한 최고 재상기구가 되었다. 『金史』, 권55, 百官志1, 1216쪽.

6) 『金史』, 권4, 熙宗 본기, 70쪽(高慶裔, 蕭慶, 希尹), 72쪽(完顏奕), 73쪽(李德固); 권76, 宗磐 열전, 1730쪽; 권78, 韓企先 열전, 1777쪽.

7) 『金史』, 권55, 百官志1, 1217쪽.

8) 『金史』, 권5, 海陵王 본기, 106쪽; 移刺元宜가 대정2년 2월 平章政事に 임명되었다. 『金史』, 권6, 世宗 본기, 126쪽.

9) 三上次男, 「金朝における女真人外戚の政治・社會的地位」, 『金史研究 三: 金代政治・社會の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3) 107쪽.

10) 三上次男은 통계의 기초가 되었던 자신의 논문에서 渤海人인 張浩를 한족으로 표시하기도 했다(「金朝初期の三省制度」, 『金代政治制度の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335쪽). 또한 武都를 參知政事を 역임했다고 하여 宰執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료를 오독한 결과이다(「金代における尙書省制度とその政治的意義」, 『金代政治制度の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451쪽). 三上次男은 『金史』 武都 열전을 근거로 들었는데, 武都 열전에는 “中都解圍, 爲河東宣武使. 俄以參知政事胥鼎代之.”(中都의 포위가 풀리자 그(武都)를 河東宣撫使로 삼았는데, 잠깐 있다가 參知政事 胥鼎이 그를 대신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武都는 參知政事に 임명된 적이 없었고 얼마 후인 興定 원년(1217) 사망했다. 『金史』, 권128, 武都 열전, 2772쪽.

11) 張博泉 等, 『金史論稿』 권2, (吉林文史出版社, 1992) 413쪽.

12) 三上次男은 「金朝における女真人外戚の政治・社會的地位」의 각주 4번(121쪽)에서 자신의 통계는 『金代政治制度の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1970)에 실린 「金朝初期の三省制度」와 「金代における尙書省制度とその政治的意義」에 실린 표들을 참고해

한편, 陳昭揚은 그의 학위논문의 부록으로 『金代宰執簡表』를 첨부하고 34명을 포함시켰는데, 이들은 모두 세종 이후에 재직에 임명된 한족으로서 금조 전 시기를 다루고 있지 않다.<sup>13)</sup> 이뿐만 아니라 武仙은 금조 말년에 금 조정에 귀순한 군벌로 비록 哀宗 때에 參知政事의 직함을 받기는 했지만 조정에서 정무에 참여한 자는 아니었다.<sup>14)</sup>

최근에 나온 孫孝偉의 논문은 『金史』를 위주로 하면서 『中州集』, 『遺山先生文集』 등을 참고하여 금대 “宰相”(집정 포함)의 숫자를 159명으로 계산했다. 孫孝偉는 三上次男과 張博泉과 달리 재상을 역임한 사람의 숫자를 황제의 재위 기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이증으로 셈하지 않았다. 그리고 尙書省의 宰執 이외에도 天會 13년(1135) 勃極烈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전까지 勃極烈을 역임했던 여진족 원로 종실대신을 위해 마련한 領三省事를 지냈던 인물들을 누계에 포함시켰다. 孫孝偉는 재상의 직함을 받았지만 조정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지방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제외했는데, 대개 금조 말기의 각지에서 활거하던 군벌들을 회유하기 위해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 試用함을 뜻하는 재상의 직함 앞에 “權”자가 붙은 재상은 제외했다.<sup>15)</sup> 孫孝偉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崔立과 같이 반란을 일으키고 재상을 참칭한 자도 재상의 숫자에서 제외했다. 그가 사용한 이러한 원칙들은 금조 宰執의 숫자를 셀 때 준거할 만한 기준으로 여겨진다. 또한 三上次男이나 張博泉 등이 재상의 숫자만 표시하고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반면 孫孝偉는 자신이 재상으로 세웠던 159명의 이름과 이들을 찾아낸 출처를 명기하고 있다.<sup>16)</sup>

孫孝偉는 금대 재상 159명 가운데 한족을 47명으로 계산했다. 孫孝偉는 159명의 재상을 민족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47명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 가운데 한족으로 분류됨이 확실한 인물 중 蘇公, 劉通, 程嶧는 가공의 인물들로 사료된다. 이들의 재상 재임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단편적이다. 蘇公은 孫이 『遺山先生文集』의 「忠武任君墓碣銘」에서 찾아낸 이름이다.<sup>17)</sup> 해당 명문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明昌 연간……이후 右丞 蘇公 이하 무릇 26가 왕왕 끊어진 것을 다시 잇게 되고 점차 미미했다가 다시 성하게 되었다.”<sup>18)</sup> 그런데, 『金史』에서 찾아볼 수 있는 蘇姓으로 재상에 오른 사람은 蘇保衡이 유일하다. 蘇保衡은 世宗 大定 연간에 右丞으로 재임 중에 사망했다.<sup>19)</sup> 劉通은 『中州集』 권9 「劉曹王豫」에서 曹王 劉豫의 “孫子 通이 海陵朝에서 參知政事를 지냈다.”<sup>20)</sup>라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中州集』의 저자인 元好問이 海陵王 대에 參知政事를 지낸 李通과 착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孫孝偉는 이들 두 명을 제

서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논문에 실린 宰執의 임면에 관한 일련의 표는 尙書省이 존재했던 전 시기를 포괄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각 宰執의 민족에 관한 표시도 거의 없다.

13) 陳昭揚, 「征服王朝下的土人－金代漢族土人的政治, 社會, 文化論析」, 267~268쪽.

14) 『金史』, 권118, 武仙 열전, 2578쪽.

15) 孫孝偉, 「金朝宰相制度研究」, 37쪽. 侯震은 그의 논문 「金末漢人宰執研究」에서 재상을 권섭하도록 명 받은 사람들조차도 모두 재상에 포함시켜 논하고 있다. 하지만 宣宗이 지적하는 바대로 권섭을 명한 것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지 試用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재상은 아니었다. 『金史』, 권104, 溫迪罕達 열전, 2293쪽.

16) 孫孝偉, 「金朝宰相制度研究」의 表2.1 金朝宰相簡表, 38~42쪽.

17) 孫孝偉, 「金朝宰相制度研究」, 40쪽.

18) 閻鳳梧 主編, 『全遼金文』(山西古籍出版社, 2002) 下卷 3088쪽.

19) 『金史』, 권89, 蘇保衡 열전, 1974쪽.

20) 元好問 編, 張靜 校注, 『中州集校注』(中華書局, 2018) 2326쪽.

외한 다른 한족 宰執은 모두 『金史』를 검색해 찾아냈다.

한편, 程巖이란 이름은 『金史』의 章宗 本紀에 한 차례 등장한다. 明昌 3년(1192) 11월 壬午일에 尙書省에서 知河南府使 程巖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작위를 높여 봉해줄 것을 간청한다고 아뢰자 權尙書禮部郎中 党懷英이 말하길, “무릇 재상이나 집정을 외임장관으로 고쳐 임명하면 그의 부관 이하가 相見하는 예의가 모두 다른 장관과 같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도 또한 試補省令史를 얻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진봉하는 것도 이치가 다른 장관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재상과 한 가지로 進封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章宗이 그의 의견을 따랐다.<sup>21)</sup> 孫孝偉는 이를 보면 程巖이 일찍이 재상의 일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여 『金朝宰相簡表』에 편입하였다.<sup>22)</sup> 그런데, 앞서 世宗 말년에 程輝가 3년간 參知政事를 역임하고 대정 26년(1186) 나이가 들어 치사했다. 이듬해 하남부사로 기용하려고 하자 연로함을 이유로 사양하자 世宗이 “경은 오래 外職을 역임하였으나 좋은 州郡에 있지 않았다. 河南은 풍광이 수려하고 일이 간편하여 경에게 맡기니, 한가로이 노닐면서 수양이나 하시오”라고 하며 河南府使에 기용한 바 있다. 程輝는 章宗 承安 원년(1196) 사망했다.<sup>23)</sup> 程巖은 바로 程輝의 오기이거나 별칭일 것이다.

孫孝偉가 잘못 산입한 3명을 제외하면 그 숫자가 필자가 『金史』를 검토하여 찾아낸 금조 한족 宰執의 총수인 44명과 일치한다. 필자가 찾아낸 44인은 아래 <표 1>에 적어서 학자들의 叱正을 기다린다. 이들은 또 한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다.

<표 1> 金代 漢族 宰執 一覽表

번호	이름	생몰연대	宰執 재임 시기	최고관직	출신구분	출신지	입사경로	『金史』 출전
1	韓企先	1082~1146	1128~1146	右丞相	燕雲人	燕京 (中都路)	歸附 (前任遼官)	권4, 78
2	李德固	?~1153	1138~1153	平章政事	滿蒙人	遼 內地*	歸附 (前任遼官)	권4, 5
3	韓昉	1082~1149	1141~1147	參知政事	燕雲人	燕京 (中都路)	歸附 (前任遼官)	권4, 125
4	劉箬	1096~1153	1147~1150	右丞相	燕雲人	大興 宛平 (中都路)	歸附 (前任遼官)	권4, 78
5	劉麟	?	1149~1150	左丞	河北人	阜城 景州 (河北東路)	歸附 (前任宋官)	권5, 77
6	張通古	1088~1156	1150~1156	左丞	燕雲人	易州 易縣 (中都路)	친거 (前任遼官)	권5, 83
7	張中孚	?	1150~1155	左丞	陝甘人	張義堡 (鳳翔路)	歸附 (前任宋官)	권5, 79

21) 『金史』, 권9, 章宗 本紀1, 225쪽.

22) 孫孝偉, 『金朝宰相制度研究』, 41쪽.

23) 『金史』, 권95, 程輝 열전, 2111쪽.

번호	이름	생몰연대	宰執 재임 시기	최고관직	출신구분	출신지	입사경로	『金史』 출전
8	劉萼	?	1153~1156	左丞	燕雲人	大興 宛平 (中都路)	歸附 (前任遼官)	권5, 78
9	蔡松年	1107~1159	1155~1159	右丞相	河北人	眞定府 眞定 (河北西路)	特採	권5, 125
10	敬嗣暉	?	1158~1161, 1171	參知政事	燕雲人	易州 (中都路)	進士及第 (1139)	권5, 6, 91
11	李通	?~1161	1158~1161	右丞	?	?	?	권5, 129
12	劉長言	?	1160	右丞	山東人	東平 (山東西路)	蔭補(?)**	권5
13	翟永固	?	1162~1163	左丞	燕雲人	中都 良鄉 (中都路)	進士及第 (1128)	권6, 89
14	蘇保衡	1111~1166	1163	右丞	燕雲人	雲中 天成 (西京路)	特賜進士	권6, 89
15	石琚	1111~1182	1163~1179	右丞相	河北人	定州 (河北西路)	壯元及第 (1139)	권6, 7, 88
16	魏子平	?~1186	1168~1171	參知政事	燕雲人	弘州 (西京路)	進士及第 (天會年間)	권6, 89
17	孟浩	?~1173	1167~1172	右丞	燕雲人	灤州 (中京路)	歸附 (遼 進士)	권6, 7, 89
18	王蔚	?	1175~1176, 1190	右丞	燕雲人	香河 (中都路)	進士及第 (1142)	권7, 9, 95
19	梁肅	?~1188	1180~1183	參知政事	燕雲人	奉聖州 (西京路)	進士及第 (1139)	권8, 89
20	張仲愈	?	1183	參知政事	?	?	?	권8
21	程輝	1114~1196	1183~1186	參知政事	燕雲人	蔚州 靈仙 (西京路)	進士及第 (1142)	권8, 95
22	馬惠迪	?	1186~1188	參知政事	燕雲人	朔陰 (中京路)	進士及第 (1151)	권8, 95
23	劉璋	?~1193	1188~1189, 1192~1193	右丞	滿蒙人	咸平 (咸平路)	特賜進士	권8, 9, 10, 95
24	張萬公	?~1207	1191~1193, 1199~1203	平章政事	山東人	東平 東阿 (山東西路)	進士及第 (1157)	권9, 10, 11, 95
25	胥持國	?~1197	1193~1197	右丞	山西人	代州 繁峙 (河東北路)	經童科 及第	권10, 129
26	馬琪	?~1197	1193~1196	參知政事	燕雲人	大興 寶坻 (中都路)	進士及第 (1160)	권10, 95
27	董師中	1129~1202	1196~1199	左丞	河北人	洺州 (河北西路)	進士及第 (1149)	권10, 11, 95

번호	이름	생몰연대	宰執 재임 시기	최고관직	출신구분	출신지	입사경로	『金史』 출전
28	楊伯通		1197~1199	參知政事	燕雲人	弘州 (西京路)	進士及第 (1163)	권10, 11, 95
29	孫卽康	?~1211	1203~1211	平章政事	燕雲人	析津 (中都路)	進士及第 (1170)	권11, 12, 99
30	賈鉉	?~1213	1203~1207, 1212~1213	參知政事	河北人	博州 博平 (河北東路)	進士及第 (1173)	권11, 12, 13, 99
31	孫鐸	?~1215	1207~1209	參知政事	滿蒙人	徙恩 歷亭 (北京路)	進士及第 (1173)	권12, 99
32	耿端義	?	1210~1211, 1213~1214	參知政事	山東人	博州 博平 (河北東路)	進士及第 (1188)	권13, 14, 101
33	梁鏜	?	1211~1212	參知政事	燕雲人	范陽 (中都路)	進士及第 (1176)	권13, 48, 107
34	孟鑄	1140~1213	?~1212	參知政事	河北人	大名府 莘縣 (河北東路)	?	권13, 100
35	胥鼎	?~1224	1213~1220, 1225~1226	平章政事	山西人	代州 繁峙 (河東北路)	進士及第 (1188)	권13, 14, 100
36	王維翰	?	1213~1215?	參知政事	滿蒙人	利州 龍山 (北京路)	進士及第 (1188)	권13, 121
37	賈益謙	?~1226	1212, 1214~1216	左丞	河北人	沃州 (河北西路)	進士及第 (1170)	권 106
38	高汝礪	?~1224	1214~1224	右丞相	燕雲人	應州 金城縣 (西京路)	進士及第 (1179)	권14~17, 107
39	侯摯	?~1232	1215~1220, 1232	平章政事	山東人	東平 東阿 (山東西路)	進士及第 (1191)	권17, 18, 108
40	李革	?	1216, 1217~18(權)	參知政事	山西人	河中 河津 (河東南路)	進士及第 (1185)	권14, 99
41	張行信	1163~1231	1217~1218, 1223	左丞	山東人	莒州 日照縣 (山東西路)	進士及第 (1188)	권15, 17, 107
42	李復亨	1177~1222	1220~1221	參知政事	山西人	河中 河津 (河東南路)	進士及第 (1195)	권16, 100
43	師安石	?	1227~1228	右丞	河北人	清州 (河北東路)	進士及第 (1200)	권17, 108
44	李蹊	?~1232	1227~1233	左丞	滿蒙人	遼陽 (東京路)	進士及第 (1194)	권17

\* 李德固에 관한 기사는 『金史』에 산견된다. 世宗 대에 그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猛安을 세습받길 청했다가 거절된 점을 볼 때 그가 太祖 阿骨打가 燕京에 들어오기 전에 만주지역에서 금조에 歸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劉長言은 과거에 급제한 기록이 없다. 都興志, 「金代進士題名錄」(武玉環 等 著, 『中國科學制度通史 遼金元卷』(上海人民出版社, 2015), 338~432쪽) 참조. 반면, 그는 재상이 출신이다. 그의 가계의 이력에 관해서는 이 글의 “Ⅲ. 한족 재집 집단의 지역 분포와 변화”에서 부연 설명할 예정이다.

금조 재집의 정원은 熙宗 때에는 9명, 평장정사 2인이 폐지된 海陵王 정릉 원년 관제 개혁이후에는 7명이었다가 世宗 대에 평장정사가 부활하면서 다시 9명이 되었지만 항상 모든 자리가 채워졌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 어느 한 시점에 함께 근무하는 재집의 총수와 이 가운데 한족 재집의 숫자는 <표 2>와 같다. 章宗 때까지 한족 재집은 그 숫자가 희소했지만 衛紹王 시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宣宗 때에는 금대 전체에 걸쳐 한 시점에 재직 중인 한족 재집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興定 5년(1221)과 元光 원년(1222)에는 한족 재집의 숫자가 여진족 재집 숫자를 능가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sup>24)</sup> 哀宗 대에도 전반기인 正大 원년에서 5년(1224~1228)까지는 재상 6명 가운데 절반인 3명이 한족이었다.<sup>25)</sup> 宣宗, 哀宗 시기 한족 재상의 증가는 금조가 燕雲지역과 만주를 상실하고 한족의 터전인 중원 지역을 겨우 보전하고 있었으므로 한족 관원의 협조가 절실했던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표 2> 金代 宰執의 양적 변화

	熙宗	海陵王	世宗	章宗	衛紹王	宣宗	哀宗
宰執 전체	6~10	6~8	8~10	5~7	4~8	6~12	3~6
漢族 宰執	1~3	1~3	1~2	1~2	2~3	4~5	1~3

자료래원 : 萬斯同 撰, 『金將相大臣年表』, 『宋遼金元明六史補編』(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권1, 403~420쪽.

### Ⅲ. 한족 宰執 집단의 지역 분포의 변화

학계와 金人の 관습에 따르면 금조의 영역은 6개 지구로 나뉘었다. 즉, 河北, 河南, 山西, 山東, 陝甘, 滿蒙 지구 등이다.<sup>26)</sup> 이 가운데 河北 지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中都路和 山西 지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西京路는 河北과 山西의 기타 지역과 달리 遼와 宋이 공존하고 있었을 때 遼에 속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燕雲” 지역으로 불리며 당말 이래 오랫동안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으며 937년 後晉이 거란에 할양한 이래 약 2백년간 거란의 통치를 받아서 중원왕조에 속했던 다른 하북, 산서지역과는 역사적 배경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필자는 中都路和 西京路 지역을 燕雲 지구란 명칭으로 따로 분리했다. 금대에 한 번도 宰執을 배출한 적이 없었던 河南을 제외하고 기타 5개 지구와 燕雲 지구에서 배출한 재상들을 이들이 활동했던 황제의 재위 기간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표 3>와 같다.

24) 興定 5년의 한족 宰執은 高汝礪, 胥鼎, 侯擘, 張行信 등이고 여진족 宰執은 完顏守純, 徒單思忠, 僕散毅夫였다. 僕散毅夫는 3월에 參知政事에 임명되었다가 10월에 동경의 行尙書省에 임명되었다. 원광 원년의 한족 宰執의 구성은 전년과 같았고 여진족은 徒單思忠이 3월 陳州防禦使로 좌천되고 把胡魯가 8월에 參知政事로 임명되었다. 萬斯同 撰, 『金將相大臣年表』, 『宋遼金元明六史補編』(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권1, 419쪽.

25) 萬斯同 撰, 『金將相大臣年表』, 419쪽.

26) 陳昭揚, 金代漢族士人的地域分布 - 以政治參與爲中心的考察, 『漢學研究』 26卷 第1期(2008.3) 106~107쪽.

〈표 3〉 금대 각조에서 활동한 한족 宰執의 출신지역\*

	滿蒙	燕雲	陝甘	河北	山東	山西	불명	총계
熙宗	1	2	0	0	0	0	0	3
海陵王	1	4	1	2	1	0	1	10
世宗	1	9	0	1	0	0	1	12
章宗	1	4	0	3	1	1	0	10
衛紹王	2	1	0	3	1	1	0	8
宣宗	1	1	0	2	3	3	0	10
哀宗	1	1	0	1	2	1	0	6
총계	9	22	1	11	7	6	2	58

\* 宰執 한 사람이 여러 황제의 조정에서 활동했을 경우 모두 따로 계산했다. 가령 胥鼎은 1213년~1220년, 그리고 1225~1226년 두 차례에 걸쳐 宰執으로 활동하면서 衛紹王, 宣宗, 哀宗 등 세 시기에 재상을 역임했기 때문에 삼조에 걸쳐 산동출신의 재상으로 산입되었다.

자료래원 : 〈표 1〉; 萬斯同 編, 「金將相大臣年表」

〈표 3〉에서 보듯이 熙宗에서 章宗 대에 이르기까지 尙書省에는 燕雲 출신 宰執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우선 금 태조가 이 지역에 진입한 이래 이곳의 한족 엘리트들을 적극 초무했고 이들은 금 조정에 합류한 이후 적극적으로 개국에 이바지했기 때문이었다. 대정 14년(1174) 칙령으로 開國功臣 21인, 亞次功臣 22인을 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비여진족은 오직 5명이었는데, 발해인이 1명, 거란족이 1명이었고 그 나머지 3명은 한족으로서 劉彥宗이 開國功臣 제18위, 韓企先이 開國功臣 제21위, 韓常이 亞次功臣 제22위였다.<sup>27)</sup> 한데, 이들의 직관이 각각 遼 南京道에 속한 大興, 涿州, 燕山으로 모두 燕雲 출신이었다. 금조는 요를 멸한 후 時立 愛와 劉彥宗에게 雲中과 燕京에 각각 설치한 漢地 통치기구인 樞密院의 업무를 맡기고 이들에게 관리의 임면과 세금의 수납을 담당하게 했다. 劉彥宗이 사망한 후에는 역시 燕雲 출신의 한기선이 그 임무를 맡았다. 韓企先은 관리를 임명할 때 후진을 배양하고 장려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는데, 특히 尙書省에 그의 추종자들이 많았다.<sup>28)</sup>

당시 남쪽의 宋은 요의 치하의 한족들이 같은 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漢兒”라고 부르고 동류로 취급하지 않았다. 宣化 연간 금과 요를 협공해 燕雲 지역을 잠시 회복한 이후 이 지역의 한족 관리들과 백성들을 북송 내지에 두고 차별과 기시를 가하였으며 금송전쟁의 외중에는 이들의 반란을 두려워하고 대량으로 살육을 자행했다.<sup>29)</sup> 송조의 이러한 편협한 태도는 燕雲人의 송조에 대한 반감을 자극해 더욱 금조에 충성하고, 금의 조정이 燕雲 출신 한족 관리들을 더욱 신임하고 宰執에 기용하게 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연운인이 한족 재집의 대중을 차지하는 양상은 금조 중기의 세종, 장종 때까지 계속되었다. 세종과 장종은

27) 劉浦江, 「金朝的民族政策與民族歧視」, 『歷史研究』, 1996년 제3기, 59쪽.

28) 『金史』, 권78, 韓企先 열전, 1778쪽.

29) 劉浦江, 「金朝的民族政策與民族歧視」, 63쪽.

연운인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이 두 황제가 한기선이 정치적인 후계자로 지목한 田穀 등 연운인이 대거 연루되어 숙청되었던 희종 말년에 일어난 田穀의 당화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살핌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世宗은 田穀의 黨禍가 조작된 것이라고 여겼고, 당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시 기용했다. 나중에 尙書右丞에 오르게 되는 孟浩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sup>30)</sup> 章宗 또한 田穀 등 군자가 소인들에게 모함을 당했다고 이 사건을 정의하고 당화로 이미 죽은 자들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음서의 길을 열어주었다.<sup>31)</sup>

연운 출신이 한족 재집의 대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황제 뿐만 아니라 여진인을 비롯한 북방민족 출신 재집들의 연운인에 대한 선호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황제는 재집을 임명할 때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앞으로 호흡을 맞추게 될 기타 재집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집에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운지역 한족은 당 말 이래 오랫동안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고 요의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재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진족, 발해인, 거란인 등 북방민족 출신 재집에게 과거 북송 지역 출신의 인물들, 즉 남인보다 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세종은 燕人和 南人에 대해 평하면서, “연인은……遼兵이 오면 遼를 따르고, 宋이 오면 宋을 따르고, 본조가 이르면 본조를 따랐다. 그 풍속이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남을 따르는 것은 원래부터 그러한 것이다. 비록 누차 변천을 겪었지만 일찍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sup>32)</sup>라고 평한 반면 남인에 대해서는 “성품이 거칠고, 강직하고 어려움을 무릅쓸 줄 안다”<sup>33)</sup>고 칭찬한 바 있었다. 협업해야 하는 동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南人보다는 燕人이 더욱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장종이 재집과 재상의 인사를 의논했을 때 장종이 하북 출신인 賈鉉을 기용하려고 하자 재신들은 연운 출신인 孫卽康을 추천하여 결국 재집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적도 있었다.<sup>34)</sup>

海陵王 때에는 전후 시기와 달리 옛 북송 지역 출신 한족 관리도 과거 요 지역 출신과 비슷한 숫자로 宰執으로 기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종래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는 海陵王이 남송의 정벌을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원의 사정에 밝고 남송 정권에도 잘 알려진 과거 북송 명문가 출신의 인사들을 발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海陵王 시기에 宰執을 역임한 옛 北宋 지역 출신의 인사들은 劉麟, 張中孚, 蔡松年, 劉長言 등인데, 이 가운데 劉麟은 북송에서 知濟南府使를 지냈으며 금이 황하 이남에 세운 괴뢰국인 齊의 황제였던 劉豫의 아들이었다. 그는 海陵王이 1049년 쿠데타 이후 參知政事로 발탁하기 전에 제나라의 尙書左丞相을 역임하면서 거의 매해 남송과 싸움을 벌인 경험이 있었다.<sup>35)</sup> 張中孚의 부친 張達은 송나라에서 벼슬이 太師에 이르렀고 慶國公에 봉해졌으며 그 자신은 송조에서 아버지의 蔭敍로 承節郎에 임명된 적이 있었다. 그는 1130년 금 군대에 투항했지만 天眷 연간(1138~1140) 금이 괴뢰국이었던 齊나라를 폐지하고 하남을 송나라에 돌려줄 때 다시 송나라로 돌아갔다. 금 조정은 하남을 다시 평정하고 나서

30) 『金史』, 권89, 孟浩 열전, 1979쪽.

31) 『金史』, 권89, 孟浩 열전(田穀 附), 1981쪽.

32) 『金史』, 권8, 世宗 본기 下, 184쪽.

33) 『金史』, 권97, 賀揚庭 열전, 2151쪽.

34) 『金史』, 권99, 賈鉉 열전, 2192쪽.

35) 『金史』, 권77, 劉豫 열전(劉麟 附), 1762쪽.

1140년 송에 공문을 보내 그를 돌아오게 했다. 海陵王은 즉위 직후 그를 參知政事에 임명(1150)하고 이어서 1153년부터 1155년까지 尙書左丞으로 기용했다.<sup>36)</sup>

한편 蔡松年의 아버지 蔡靖은 금조에 투항하기 전에 송이 금과 연합하여 북경일대를 회복한 후 두 해 동안 이곳을 진무하였고 宣和 7년(1125) 4월에는 송 조정으로부터 燕山府路 宣撫司使 兼 國信使에 임명되었던 인물이었다.<sup>37)</sup> 海陵王은 즉위직후 蔡松年을 이부시랑으로 발탁하였다. 海陵王은 “장차 송을 정벌하려고 함에 蔡松年의 집안이 대대로 송에서 벼슬하였기 때문에 (그를) 빠르게 높은 지위로 발탁하여 南人들을 놀라게 했다.”<sup>38)</sup> 그리하여 1153년 송에 정단사로 다녀오게 한 후 吏部尙書로 옮기게 하더니 1155년 參知政事로 삼았으며 1156년에는 右丞, 곧이어 左丞, 1158년에는 右丞相까지 승진했다. 劉長言은 蔡松年 이상으로 송나라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劉長言의 조부 劉擘는 嘉祐 연간(1056~63)의 진사로 북송의 재상을 지냈다. 그의 백부 劉跂(元豐 2년 진사)와 부 劉躋 역시 詩文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sup>39)</sup> 海陵王은 이미 치사했던 그를 남송 정벌을 한창 준비 중이던 1160년에 다시 尙書右丞으로 기용했다.<sup>40)</sup>

금조 후기에 접어들면 과거 북송 지역 출신인사들이 한족 재집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근 陳昭揚은 금조에서 과거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금 초기에는 과거 거란 지역과 송 지역은 호구수의 비율이 1:3<sup>41)</sup>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南北分榜으로 운영되어 양 구역의 합격자의 수의 비율이 4:3이나 2:3으로 정해져 요 지역 출신자들에게 유리했고, 이에 힘입어 이 지역 출신의 한족 엘리트들이 진사의 자격으로 대량으로 정단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금초에 투항한 만주와 연운 출신의 한족 관리 및 음모로 출사한 이들의 후예들과 결합하여 금조의 정단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1151부터 南北通榜으로 지역의 구분 없이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옛 북송 지역 출신 급제자가 신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집의 구성에 있어서도 장중 시기부터 옛 북송 지역 출신이 우세를 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42)</sup> 진소양은 장중 시기 재집의 숫자가 8명이고, 이 가운데 “옛 거란 지역[遼境]” 출신이 3명, “옛 북송 지역[宋境]” 출신이 5명이라고 조사했다.<sup>43)</sup>

하지만,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중 때 한족 재집은 王蔚, 劉璋, 張萬公, 胥持國, 馬琪, 董師中, 楊伯通, 孫卽康, 賈鉉, 孫鐸 등 10명인데, 이 가운데 王蔚, 劉璋, 馬琪, 楊伯通, 孫卽康 등 5명이 “遼境” 출신이다. 또한 10명 중 1151년 南北通榜 이후에 진사에 급제한 사람이 6명인데, 이 가운데 “宋境” 출신은 장만공, 손탁, 가현 등 세 사람이고, 마기, 양백통, 손즉강 등 세 사람은 “遼境” 출신이다(〈표 1〉 참조). 이는 南北通榜과 옛 북송 지역의 과거합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조 통치자들의 燕雲 출신 재집에 대한 선호는 章宗 때

36) 『金史』, 권79, 張中孚 열전, 1788쪽.

37) 『宋會要輯稿』, 兵十四, 宣和7年.

38) 『金史』 권125, 蔡松年 열전, 2716쪽.

39) 『中州集』 卷9, 劉右相長言(『中州集校注』, 2335~2336쪽.)

40) 『金史』, 권5, 海陵王 본기, 111쪽.

41) 『金史』 「地理志」에 따르면, 宋境의 호구가 6,363,919호인 반면, 遼境의 호구는 1,948,778호이다. 陳昭揚, 金代漢族土人的地域分布 - 以政治參與爲中心的考察, 『漢學研究』 26卷 第1期(2008.3) 117쪽.

42) 陳昭揚, 金代漢族土人的地域分布 - 以政治參與爲中心的考察, 『漢學研究』 26卷 第1期(2008.3) 118쪽.

43) 陳昭揚, 金代漢族土人的地域分布 - 以政治參與爲中心的考察, 『漢學研究』 26卷 第1期(2008.3) 117쪽.

까지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衛紹王 시기 이후부터는 연운 출신이 매 조에 불과 1명으로 현격히 축소되는데, 이는 이 시기부터 이 지역이 몽고의 수중에 떨어지는 상황과 관련성이 깊다고 여겨진다. 대안3년(1211) 4월 칭기즈칸이 거느리는 몽골군이 남침하여 연운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령했다. 西京을 지키던 장수가 中都(지금의 베이징)로 도망쳐오고 中都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弘州, 懷來, 緡山, 昌平, 密雲이 떨어지고 요동 지역과 중도를 잇는 요지인 平州, 灤州, 昌黎, 撫寧 역시 함락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은 연인이 요병이 오면 요병을 따르고, 송인이 오면 송인을 따르고, 본조가 오면 본조를 따랐다고 연인의 강자에게 순응하는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sup>44)</sup> 칭기즈칸의 남침에 항거하는 연운인도 존재했지만,<sup>45)</sup> 적지 않은 연운지역 출신의 관원과 세력가들은 투항했을 뿐만 아니라 금조를 침략하는 선봉으로 활약했다. 『元史』 열전에 수록된 史秉直, 史懷德 형제, 石天應, 李守賢, 何實, 趙璿, 劉世英, 張柔 등은 모두 연운 지역 출신으로서 금조에서 출사한 집안이거나 고향에서 세도 가문으로 행세했지만 족당을 이끌고 원에 투항해 화북지역을 공략하는데 이바지했다.<sup>46)</sup>

대표적인 예가 燕人 史秉直, 史懷德 형제이다. 1213년 木華黎가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자 史秉直은 친족을 모으고, “바야흐로 국가가 상란을 겪고 있다. 우리 집안 백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보전할 수 있겠는가?”라며 살아남을 방도를 모색했다. 이미 투항한 사람들이 모두 방면되었다는 것을 알고 懷德과 향리의 老幼 수천 명을 이끌고 涿州의 木華黎의 군문에 가서 항복했다. 무칼리는 秉直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통솔하게 했는데, 병직은 이 임무를 능숙하게 해내어 원근에 귀부해오는 자가 십여만 가에 이르렀다. 1215년 북경이 함락되자 병직은 行尙書六部事가 되어 군항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았다.<sup>47)</sup> 懷德은 장정을 수만 명을 모아서 木華黎를 따라 종군하여 1213년 화북에서 霸州, 文安, 大城, 滄濱, 長山 등 20여 성을 취하고 산동에 들어가 臨淄, 忻州, 密州 등 3주를 함락시켰는데 가는 곳마다 남보다 앞서 성에 올랐다. 다음해에는 북경로의 惠和, 金源, 和衆, 龍山 등 15개 성을 함락시키고, 大寧城 공략의 선두에 나섰다가 流矢에 맞아 전사했다.<sup>48)</sup> 秉直과 懷德의 아들인 史天倪, 史天澤, 史天祥 등도 모두 금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sup>49)</sup>

이와 같이 그간 중용해왔던 연운 지역 출신 엘리트들이 몽골군의 앞잡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연운과 만주지역을 상실하고 갈수록 중원지역으로 판도가 줄어들게 되자 금 통치자들은 당시의 사정에 익숙한 구북송 지역 출신들을 宰執으로 발탁하게 되었던 것이다.

44) 『金史』, 권8, 世宗 본기 下, 184쪽.

45) 『金史』 忠義傳에 貞祐 연간 초기 몽골, 夏와의 전쟁의 와중에 순국한 연운 출신의 관원 宋辰, 劉德基, 王毅 등의 열전이 실려 있다. 『金史』 권121, 忠義1, 2649쪽(宋辰), 2651~2쪽(劉德基), 2652쪽(王毅).

46) 『元史』, 권147, 張柔 열전, 3471쪽; 史天兒 열전, 3478쪽; 史天祥 열전, 3486쪽; 권149, 石天應 열전, 3526~8쪽; 권150, 李守賢 열전, 3547~8쪽; 何實 열전, 3551~2쪽; 趙璿 열전, 354~5쪽; 劉亨安 열전, 3559~60쪽 참조.

47) 『元史』, 권147, 史天兒 열전, 3478~3479쪽.

48) 『元史』, 권147, 史天祥 열전, 3486쪽.

49) 『元史』, 권147, 史天兒 열전, 3478~80쪽; 史天祥 열전, 3486~88쪽; 권155, 史天澤 열전, 3657~3663쪽.

#### IV. 宰執 기용 전의 경력

이 부분에서는 宰執까지 성공적으로 승진한 한족관료들의 경력을 살펴봄으로서 한족 관료들이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승진 조건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중에 宰執에 오르게 되는 한족 사인들이 금 조정에서 벼슬을 시작하는 방식은 遼와 宋의 관리였다가 귀부하는 경우, 천거를 받는 경우, 가문의 음덕으로 進士나 벼슬을 特賜 받는 경우, 그리고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표 1>의 <입사 경로>란에 정리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熙宗(1135~1149)부터 海陵王 시기(1149~1160)에 宰執을 역임했던 韓企先부터 劉長言까지 12명은 거의 대부분 요와 송의 관리로 재직하던 중 금에 귀부함으로써 금 조정에 출사한 사람들이거나, 이미 금에 귀부한 지인의 추천(張通古)을 받거나 귀부한 부친의 음덕(蔡松年과 劉長言(?))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개 금조가 새로 획득한 燕雲과 중원지역, 즉 漢地를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에서 활동하거나 국초의 제도의 정비작업에 참여한 이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熙宗 대의 韓企先은 尙書左僕射兼 侍中으로 燕京 樞密院에서 漢地의 관리 임용, 노역징발, 조세 징수를 모두 황제의 위임을 받아 처리했다.<sup>50)</sup> 海陵王 대에 宰執에 올랐던 劉麟은 금조가 하남에 설치한 괴뢰국 제의 황제가 된 아버지를 따라 知濟南府使, 齊의 尙書左丞相을 역임했다.<sup>51)</sup> 劉箐은 금조가 齊를 폐하고 汴京에 설치한 行臺尙書省에서 行臺尙書右丞相으로 활약했다.<sup>52)</sup> 이밖에 張通古, 張中孚, 蔡松年도 宰執에 임명되기 전에 역시 行臺尙書省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sup>53)</sup>

여진 엘리트들이 아직 미숙한 외교적 의전문제나 조정의 의례의 정비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가 많은 것도 이 시기의 宰執에 오른 한족 관료들의 특징이었다. 태조가 죽은 후 夏와 宋에서 사신을 보내 조문하자 관에서 이들을 접견하는 의례를 모두 劉箐이 심사해 결정했다. 劉箐은 1142년 宋 康王을 송의 황제로 임명하는 책봉사로 파견되었는데 그의 행동거지는 송인들을 감탄케 했다.<sup>54)</sup> 張通古는 1138년 江南告諭使로 송으로 파견되어 하남을 송에 돌려주면서 송황제가 신하임을 맹세한 서약에 따라 의례를 준수하게 했다.<sup>55)</sup> 韓昉은 태종대에 高麗에 國信使로 파견되어 당시 외교적 난제였던 고려국왕이 금 황제의 신하가 되었음을 맹세하는 誓表를 올리게 하는 외교문제를 해결했고 1134년부터는 1141년 參知政事로 오르기 전 7년간 禮部尙書와 太常에 임명되어 조정에서 禮制를 의논하여 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sup>56)</sup> 금조의 宣徽院은 조회, 연회, 제사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그 장관은 左右宣徽使였는데, 劉箐, 劉萼, 敬嗣暉 등이 左右宣徽使로 재임하던 중에 宰執에 올랐다.<sup>57)</sup>

50) 『金史』, 권78. 韓企先 열전, 1777~8쪽.

51) 『金史』, 권77. 劉麟 열전(劉麟 附), 1762쪽.

52) 『金史』, 권78. 劉箐 열전, 1771~2쪽.

53) 『金史』, 권83. 張通古 열전, 1860쪽; 권79. 張中孚 열전, 1788쪽; 권125. 蔡松年 열전, 2715쪽.

54) 『金史』, 권78. 劉箐 열전, 1772쪽.

55) 『金史』, 권83. 張通古 열전, 1860쪽.

56) 『金史』, 권125. 蔡松年 열전, 2714쪽.

57) 『金史』, 권5. 海陵王 본기, 100쪽(劉萼), 109쪽(敬嗣暉).

〈표 4〉 世宗~哀宗 시기 임용된 한족 宰執의 경력

임용 시기*	성명	進士 구분	초기 관직	尙書省 令史 경력	尙書省 司官 경력	宰執 임용 직전 관직	『金史』 출전
世宗	翟永固	○	懷安丞, 望雲令		○	原任翰林學士承旨(정3품)	권6, 89
	蘇保衡	△	太子洗馬, 解州軍事判官			禮部尙書(정3품)	권6, 89
	石琚	○	弘政縣令, 邢臺縣令		○	吏部尙書(정3품)	권6, 7, 88
	王蔚	○	良鄉丞	○		南京留守(정3품)	권7, 9, 95
	敬嗣暉	○	懷安縣丞, 弘政縣令	○		左宣徽使(정3품)	권5, 6, 91
	魏子平	○	五臺主簿	○	○	戶部侍郎(정4품)	권6, 89
	孟浩	◎	樞密院令史, 平州觀察判官		○	御史中丞(종2품)	권6, 7, 89
	梁肅	○	平遙縣主簿, 望都縣令	○		彰德軍節度使(종3품)	권8, 89
	張仲愈	?	?			戶部尙書(정3품)	권8
	程輝	○	?	○	○	戶部尙書(정3품)	권8, 95
	馬惠迪	○	昌邑令	○	○	御史中丞(종2품)	권8, 95
	劉璋	△	安次丞, 遵化縣令	○	○	戶部尙書(정3품)	권8~10, 95
章宗	張萬公	○	新鄭簿, 費縣簿, 長山令	○	○	知大興府使(정3품)	권9~11, 95
	胥持國	△	博野縣丞			工部尙書(정3품)	권10, 129
	馬琪	○	清源主簿, 永清令	○	○	戶部尙書(정3품)	권10, 95
	董師中	○	澤州軍事判官, 平遙丞	○	○	御史大夫(종2품)	권10~11, 95
	楊伯通	○	?	○	○	戶部尙書(정3품)	권10~11, 95
	孫卽康	○	?	○		御史中丞(종2품)	권11~12, 99
	賈鉉	○	滕州軍事判官, 單州司候	○		刑部尙書(정3품), 原任 安武軍節度使(종3품) †	권11~13, 99
孫鐸	○	海州軍事判官, 衛縣丞	○		中都轉運使(정3품)	권12, 99	
衛紹王	耿端義	○	滑州軍事判官, 上洛縣令	○	○	禮部侍郎(정4품), 戶部侍郎(정4품) †	권13~14, 101
	孟鑄	?	?	○		絳陽軍節度使(종3품)	권100
	梁鏜	○	州縣官			戶部尙書(정3품)	『中州集』 권9
	胥鼎	○	?		○	戶部尙書(정3품), 原任 平章政事(종1품) †	권13~14, 100
	王維翰	○	貴德州軍事判官, 永霸令	○	○	刑部尙書(정3품)	권13, 121
賈益謙	○	州縣官	○	○	河中府鎮守(정3품)	권106	
宣宗	高汝礪	○	?		○	戶部尙書(정3품)	권14~17, 107

임용 시기*	성명	進士 구분	초기 관직	尙書省 尙書 경력	尙書省 司官 경력	宰執 임용 직전 관직	『金史』 출전
	侯攀	○	?			太常卿(정3품)	권17~18, 108
	李革	○	眞定主簿, 韓城令			吏部尙書(정3품)	권14, 99
	張行信	○	銅山令			禮部尙書(정3품), 原任 靖難軍節度使(정3품) †	권15, 17, 107
	李復亨	○	臨晉主簿, 南和令		○	吏部尙書(정3품)	권16, 100
哀宗	師安石	○	?	○		工部尙書(정3품)	권17, 108
	李蹊	○	?		○	翰林承旨(정3품)	권17

△는 特賜進士, ○는 遼代 進士.

\* 임용시기는 2회 이상 宰執에 임용된 경우 첫 번째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했음.

† 두 번 이상 宰執에 임용된 경우 각 번의 직전 관직을 모두 기록했음.

海陵王 대에 敬嗣暉가 금조가 설치한 과거 출신자로서 처음 재상에 오른 바 있었는데, 世宗 시기 이후가 되면 宰執에 오른 한족 관원은 거의 대부분 진사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미래 宰執이 되는 한족 관원의 경력에는 일정한 양상이 등장한다. 『歸潛志』를 저술한 劉廓은 父, 祖가 모두 관리였으며 자신도 비록 庭試에서 좌절되긴 했지만 한때 관직에 뜻을 두었으므로 금나라 관원의 출세 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sup>58)</sup> 劉廓에 따르면, “金朝 大定 초에 張太師 浩가 제도를 제정할 때 宗親과 宰執의 자제를 우대하여 試補하는 것 이외에 進士를 상서성의 아전 격인 尙書에 잡용했다. 무릇 급제한 후에 세 번 관직에 임명되어 縣令에 이르게 되면 석차에 따라 불려다 보충했다. 한번 임기를 채워 30개월이 되면 외직으로 나가서 육품 관직인 州倅 [州官의 副官 - 필자]이 될 수 있었고, 두 번 임기를 채워 60개월이 되면 오품관직인 節度副使, 留守判官 직을 얻거나 또는 知除, 知案에 선발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점차 [尙書省의 司官인 - 필자] 都事, 左司와 右司의 員外郎, 郎中을 얻을 수 있었다. 고로 벼슬길에 나서는 자는 이 길을 지름길로 여겼다.”라고 했다.<sup>59)</sup> 실제로 世宗 대 이후 宰執에 오른 사람들은 이러한 루트를 따른 사람이 많았다. 진사 급제를 한 후에 縣丞, 主簿, 縣令 등 주현관으로 임무를 시작했다가 중앙의 尙書省 尙書로 옮겨간 사람이 장래에 宰執이 되는 32명 중 19명에 이른다(〈표 4〉 참조). 이들 가운데 주현관으로 있었을 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張萬公은 장산령이었을 때 읍민들이 그의 치적을 기려 생사를 건립하였으며, 馬琪, 王維翰, 賈益謙 등 역시 현관으로 揚名했다. 이는 상서성 尙書의 보임에 지방관으로서의 치적이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보여준다. 世宗 대 이후 한족 宰執 가운데 尙書省 司官을 거친 사람도 18명이나 되는데 이들 대부분(11명)은 과거 尙書省 尙書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世宗 대 이후에 임명된 宰執 32명 가운데 26명(80% 이상)이 尙書省에서 尙書나 司官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尙書省의 司官과 尙書가 宰執에 오르는 첩경이 된 것은 조정의 典故와 行政을 익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8) 『歸潛志』, 권14 歸潛堂記(中華書局, 2007) 171쪽.

59) 『歸潛志』 권7, 76쪽.

이들이 재상이나 황제와 지척에서 근무하며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60)</sup> 尙書省 사관에는 左司와 右司에 각각 郎中 1인, 員外郎 1인, 都事 2인이 있었다. 左司의 郎中과 員外郎은 吏, 戶, 禮 삼부의 사무를 상주하고 都事가 삼부로부터 사안을 접수하고 교부하는 일을 감독했다. 右司는 兵, 刑, 工 삼부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했다. 左, 右司의 郎中과 員外郎은 宰執이 황제와 조회할 때 처리할 안건을 정리한 奏目을 들고 시종했으며 起居注官의 역할을 겸했다.<sup>61)</sup> 尙書省 令史는 尙書省에 근무하는 서리였는데 서리들의 작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사 출신의 사대부를 서리로 임명한 것이었다.<sup>62)</sup> 여진족과 한족 각각 35명씩을 두었다.<sup>63)</sup> 章宗 태화 4년 尙書省의 令史가 제멋대로 六部和 大理寺의 法章을 물리치거나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을 죄주는 법을 정했는데,<sup>64)</sup> 이를 본다면 실제로 六部나 大理寺 등에서 올라오는 문서를 수발하고 검토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이들이었다.

유능한 左右司官과 令史들은 宰執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章宗 연간에 平章政事를 지냈던 張萬公은 右司員外郎이었을 당시 승상이었던 徒單克寧이 “이후 앞으로 나를 대신할 자는 필시 너일 것이다”라며 器重했다.<sup>65)</sup> 역시 章宗 연간에 尙書左丞이었던 董師中도 尙書省 令史였을 때 우상 唐括誚魯古로부터 “다른 날 반드시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란 예언을 들었다.<sup>66)</sup> 章宗 연간에 宰執에 오르는 孫卽康, 賈鉉, 孫鐸 세 사람은 모두 尙書省 令史로 있을 때 당시 右丞相이었던 完顏襄(필자-장래의 章宗)이 눈여겨보았던 인물들이었다.<sup>67)</sup> 재상들은 종종 유능한 사관이나 令史를 자신의 당에 초치하려고 했다. 章宗 연간 平章政事였던 完顏守貞의 문하생 그룹인 “冷巖十俊”이나 역시 章宗 연간 尙書右丞이었던 胥持國을 추종하던 “胥門十哲”에는 모두 尙書省 令史들이 포함되어 있었다.<sup>68)</sup> 재상의 당여가 되면 그 후 관계에서 그의 후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특히, 尙書省의 사관들은 재상과 같이 조회에 참석하고 실무에 밝았으므로 직접 보고할 기회와 하문에 응대할 기회도 있었으므로 발탁되기 쉬웠다. 馬惠迪이 左司郎中이었을 때 그가 상주를 마치고 물러나자 世宗이 재신들에게 “馬惠迪과 같은 이는 총명하면서도 朴實하니 매우 가상하다. 짐이 일찍이 더불어 일을 논의했는데 오히려 관원들 가운데 이러한 인물이 드물었다.”라고 했다. 얼마 안 있어서 御史中丞으로 발탁했다.<sup>69)</sup> 張萬公이 右司郎中이었을 때도 世宗이 그가 보고하는 것이 명민한 것을 보고 가상히 여기고 얼마 후 刑部侍郎에

60) 陳昭揚은 世宗 이후 진사 출신의 재직 26명 가운데 상서성 영사를 거친 자가 16인에 달함을 지적하고 영사가 조정의 典故와 行政을 익히고 황제를 비롯한 상위자의 지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출세의 요로임을 지적한 바 있다. 陳昭揚, 『征服王朝下の土人-金代漢族土人の政治, 社會, 文化論析』, 97~99쪽. 하지만 영사뿐만 아니라 상서성 司官 역시 같은 이유로 재직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61) 『金史』, 권55, 百官志1. 1217~8쪽.

62) 『歸潛志』 권7, 77쪽.

63) 여진 令史는 진사 10명, 宰執이나 종실의 자제 10명, 추밀원, 어사대, 각부, 통군사 등지의 令史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족 令史도 宰執이나 종실 자제 출신이나 기타 각 아문 令史 중에서 尙書省 令史로 선발된 사람도 있었다(『金史』, 권55, 百官志1, 1218쪽). 가령, 程輝의 아들이 參知政事였던 아버지의 음덕으로 尙書省 令史에 사용된 바 있었다(『金史』, 권9, 章宗 本紀1, 225쪽). 하지만 후일 宰執에 이른 令史들은 모두 진사 출신의 令史였다.

64) 『金史』 권12, 章宗 本紀4. 268쪽.

65) 『金史』, 권95, 張萬公 列傳, 2102쪽.

66) 『金史』, 권95, 董師中 列傳, 2113쪽.

67) 『金史』, 권99, 孫卽康 列傳, 2195쪽; 권99, 賈鉉 列傳, 2191쪽; 권99, 孫鐸 列傳, 2193쪽.

68) 冷巖十俊에 관해서는 『金史』, 권104, 孟奎 列傳, 2290쪽; 胥門十哲은 『金史』, 권129, 胥持國 列傳, 2794쪽.

69) 『金史』, 권95, 馬惠迪 列傳, 2117쪽.

제수한 적이 있었다.<sup>70)</sup>

일단, 3품 정도의 고관까지 승진하여 宰執이 될 인선 대상이 되면, 尙書省 尙書, 사관이었던 사람들은 임명권자인 황제나 황제에게 宰執의 인사를 조언하는 위치에 있는 자신의 후원자이기도 한 기존의 尙書省의 宰執에게 과거 尙書省에서 근무할 때 좋은 인상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宰執에 선발되기 쉬웠다.

## V. 한족 宰執의 역할

宰執의 역할은 『金史』 百官志에 따르면, 尙書省은 기강을 총령하고 재상의 본보기가 되었다. 左·右丞相과 平章政事는 宰相이 되어 천자를 보좌하고, 各條의 정무를 명백히 변별하는 일을 관장했다. 한편, 左丞相과 右丞相 및 參知政事는 執政官으로서 재상을 보조하고 尙書省의 일을 도와서 처리했다.<sup>71)</sup> 하지만, 실제로 宰相과 執政 간의 업무의 분담은 분명하지 않았다.<sup>72)</sup> 기왕의 연구에서 宰執 집단 전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다른 바 있다.<sup>73)</sup> 하지만 한족 宰執의 역할만을 별도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데,<sup>74)</sup> 宰執에 오른 한족관료들이 맡았던 역할을 고찰한다면 금 조정에서 한족 관료들에게 기대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족 宰執이 맡았던 역할은 宰執이 되기 이전의 이들의 경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宰執이 되기 이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왔던 영역이야말로 황제가 가장 신뢰하고 자문하고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熙宗, 海陵王 시기의 한족 宰執들이 宰執이 된 이후의 행적에 관한 기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시기 한족 宰執은 宰執에 오르기 전에 의례방면에서 활약한 인물이나 漢地를 경영한 인물들이 다수였는데, 宰執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일 것이다. 특히, 韓企先은 과거의 의례제도에 통달하여 예전의 법조항을 가감하면서 금조의 의례제도를 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1171년 世宗이 延慶宮에 공신의 초상을 그리도록 했는데, 世宗은 이 때 “본조의 전장제도는 오로지 그의 손에서 나왔다”<sup>75)</sup>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宰執이 되어서도 漢地의 세금과 노역의 징수, 한관의 선발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으리라고 보인다. 海陵王代에 蔡松年은 戶部尙書로 있으면서 專賣와 稅收를 담당하는 기관을 도성에 설치하고 지폐를 발행했는데,<sup>76)</sup> 그가 宰執이 된 후에도 계속 이러한 업무를 관장했을 것이다.

한편, 世宗 이후에는 호부출신 한족 관원들의 宰執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世宗 이후 宰執에 임명된 한

70) 『金史』, 권95, 張萬公 열전, 2102쪽.

71) 『金史』, 권55, 百官志1, 1217쪽.

72) 孫孝偉, 『金朝宰相制度研究』, 147~148쪽.

73) 孫孝偉, 『金朝宰相制度研究』의 「第3章 宰相職權의行使」 참조.

74) 漢族 宰執 개인의 활약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다. 宣宗 대에 右丞相을 역임했던 高汝礪의 사상과 활동에 관해서는 梁錦秀, 『論金代漢族宰相高汝礪』, 『民族研究』 1998年 第2期 74~84쪽.

75) 『金史』, 권78, 韓企先 열전, 1778쪽.

76) 『金史』, 권125, 蔡松年 열전, 2716쪽.

족 관원 31명 가운데 삼분의 일인 10명이 宰執에 임용되기 직전에 戶部尙書나 戶部侍郎이었다. 陳昭揚은 한족 宰執의 직전 경력을 논하면서 육부 상서 가운데 이부와 호부의 경력이 가장 중요했으며, 양 부의 상서에서 곧장 재직에 오른 자가 10명이고, 이 가운데 이부상서가 4명, 호부상서가 6명이라고 지적했다.<sup>77)</sup> 하지만 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부상서에서 직접 임용된 경우는 3회에 불과하고 호부상서에서 임명된 경우는 8회나 되어서 호부상서에서 임명된 경우가 이부상서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뿐만 아니라 호부의 차관인 시랑에서 임명된 경우도 2차례나 있었다. 재직에 오른 관원들은 거의 모두가 관품이 3품 이상이었지만, 호부시랑은 4품임에도 불구하고 재직에 두 차례나 임명되었다는 것은 호부 출신이 중용되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표 4〉 참조). 세종 때 曹望之는 호부상서로 오래 있으면서 성적이 탁월하자 자못 의기양양하여 집정이 되길 엿보았다고 했는데,<sup>78)</sup> 이는 당시 호부상서로서 성적이 우월하면 집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임용 직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孟浩(戶部員外郎, 郎中), 孫鐸(戶部尙書), 侯摯(戶部主事), 李革(戶部尙書), 張行信(戶部尙書) 등도 호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이밖에 금 말기에 宰執에 오른 李復亨, 李蹊는 호부에서 일한 경험은 없지만 재정 전문가들이었다.<sup>79)</sup>

한족 宰執에 호부 출신의 재정전문가가 빈번히 임명된 원인은 금조의 황제들이 한족 재직에 기대하고 있었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世宗은 尙書左丞이었던 石渠에게 “여진인들은 항상 빠르게 승진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경은 일찍이 縣丞과 主簿를 역임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알 것이니 백성들의 이익과 해악이 되는 것을 극진히 개선하도록 하라”라고 명한 바 있었다.<sup>80)</sup> 그런데, 호부의 사원들이 맡았던 업무를 열거하자면, 戶籍, 物力, 婚姻, 繼嗣, 田宅, 財業, 鹽鐵, 酒麴, 香茶, 鑿錫, 丹粉, 坑冶, 榷場, 市易, 度支, 國用, 俸祿, 恩賜, 錢帛, 寶貨, 貢賦, 租稅, 府庫, 倉廩, 積貯, 權衡, 度量, 法式, 등과 직전(職田)의 수급, 관물의 몰수, 장부의 운영 등의 일이었다. 각종 세금을 거두고 호구를 파악하고 관원의 녹봉을 지급하고 장부와 창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호부의 당관들은 업무상 누구보다도 제국의 稅源인 한족 백성들의 생활상과 애환을 파악하고 있는 관원들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기에 재직 가운데 여진족이 대다수를 점하고 한족은 한두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조의 황제들은 기꺼이 재직 자리에 호부 출신을 선호했던 것이다.<sup>81)</sup>

이뿐만 아니라 戶部는 육부 가운데 가장 커다란 조직이었다. 『金史』 백관지에 따르면, 육부 가운데 禮, 兵, 刑, 工部에는 각기 尙書 1명, 侍郎 1명, 郎中 1명, 員外郎 1~2명, 主事 2명을 설치했다. 吏部에는 郎中이 1명, 主事가 2명이 더 추가되었다. 하지만 호부는 인원이 훨씬 많았다. 尙書 1명 아래에 시랑이 2명이었다. 郎中은 3명이었는데, 천덕 연간에는 5명으로 늘었다가 금조 말기에는 8명에 이르기도 했다.<sup>82)</sup> 실무자인 수

77) 陳昭揚, 「征服王朝下的士人 - 金代漢族士人的政治, 社會, 文化論析」, 105쪽.

78) 『金史』, 권92, 曹望之 列傳, 2039쪽.

79) 李復亨은 재물과 출납을 관리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유능한 관리로 일컬어졌다(『金史』, 열전, 권100). 李蹊는 大司農을 역임했으며 正大 연간 초 參知政事가 되고 左丞, 右丞으로 승진했는데 財賦를 전담했다. 『歸潛志』 권6, 60쪽.

80) 『金史』, 권88, 石渠 열전, 1960쪽.

81) 戶部尙書 다음으로 많은 재직을 배출했던 관직은 지방관이다. 宰執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鎮守, 府使, 留守, 節度使 등 3품 지방관이었던 한족 관원이 7명이나 된다(〈표 3〉 참조). 이 역시 지방관이 백성들의 애환을 잘 알 수 있는 관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82) 『金史』, 백관지1, 1232~1237쪽.

史의 숫자도 호부가 가장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호부는 영사 가운데 유난히 여진족보다 한족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부서였다.<sup>83)</sup> 즉, 호부는 다른 부서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 특히 비한족 출신들은 조직을 장악하거나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章宗은 戶部尙書 馬琪를 參知政事로 기용하면서 그를 오랫동안 戶部尙書에 둔 이유를 호부는 갑자기 그 책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부서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sup>84)</sup> 호부 출신의 한족 재직은 황제가 제국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조직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한족 재직의 조인과 활동도 주로 내정, 특히 재정, 농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금조가 개봉으로 천도한 후 내우외환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에 高汝礪, 張行信, 胥鼎과 侯攀는 금 조정의 柱石之臣이었다. 『金史』의 편자는 논찬에서 “汝礪와 行信이 안에서 구제하고 胥鼎과 侯攀가 바깥에서 막아 마침내 선종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면하고 애종 때 다시 10년을 더했으니 인재가 나라에 이익됨이 이와 같다.”라고 평했다.<sup>85)</sup> 주로 내정 방면에서 활약했던 高汝礪와 張行信뿐만 아니라 胥鼎과 侯攀가 재직이 된 후에 제안한 의견과 가납된 항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민생과 연관된 항목들이었다. 『金史』에 기재된 胥鼎이 貞祐 원년(1213) 6월 참지정사에 임명된 이후 건의하여 가납된 주요 상소를 시간순으로 열거하면, 貞祐 3년(1215) 공명칩과 도첩을 판매해 군량미를 비축할 것을 건의하고, 다음 해 하남의 쌀, 보리가 황하 이북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하는 금령을 풀어서 황하 이북의 군인과 백성들의 급함을 풀어주고, 하동 각 주현에서 유랑하는 농민들을 불러모아 농사를 권장하게 하고, 관작을 팔아서 식량을 비축할 것을 건의하여 모두 가납되었다. 또 상주를 올려 河北, 山東, 河東의 유랑하는 농민과 흩어진 병사들을 하남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자 황제는 관리를 파견해 이들을 위무하게 했다. 하지만, 胥鼎이 군무와 관련해 올린 상소는 항상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다. 胥鼎은 行臺尙書省에 임명되어 그가 주차하는 곳의 군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1217년 금조는 일방적으로 胥鼎에게 송나라의 정벌을 명하고 상주를 올려 이미 제정한 계획을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胥鼎이 송을 정벌해서는 안 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적은 장문의 상주문을 올려 송나라 정벌에 반대했지만 금 조정은 이를 묵살했다.<sup>86)</sup>

한편, 侯攀는 정우 3년 8월 參知政事에 임명되고 나서 얼마 후 河北, 東平, 邳州에서 연달아 行省하며 백성을 위무하면서 각지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가 상주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현지민의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즉, 정우 4년(1216) 沁水를 준설하여 식량의 운송을 쉽게 할 것을 건의하고, 하북에 기근이 들자 관청에서 쌀을 사는 것을 중지하고 백성들이 마음대로 팔고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邳州行省으로 옮긴 후인 다음해 9월에는 산동서로와 산동동로의 남부에 위치한 邳州와 海州의 유랑민들을 모아 둔전하고

83) 戶部の 尙史가 72명(泰和 연간에는 8명이 더 증원됨)이고 그 중 여진족이 17명이었던 반면, 吏部の 尙史는 69명(泰和 연간에는 10명이 더 증원됨)이고 그 중 여진족이 29명, 禮部는 尙史 15명(이 중 여진족 5명), 兵部는 尙史 27명(이 중 여진족 12명), 刑部는 尙史 51명(이 중 여진족 22명), 工部는 尙史 18명(이 중 여진족 4명) 등이었다. 『金史』, 百官志1, 1232~1237쪽.

84) 『金史』, 권95, 馬琪 열전, 2118쪽.

85) 『金史』, 권108, 열전, 2394쪽.

86) 『金史』, 권108, 胥鼎 열전, 2373~2384쪽.

가을에는 수자리 부역을 맡겨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을 건의했다. 또한 추밀원에서 해주의 군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어려우니 내지로 옮기길 청했지만, 후지는 농민들에게 시기에 맞추어 농사를 짓게 하고 소금과 식량을 교역하게 하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후지의 건의는 모두 가납되었다. 금조는 흥정3년(2019) 7월 汴京을 기준으로 京東, 京西, 京南을 관할하는 三路行三使를 설치하고 농사를 권하고, 조세를 독촉하고, 군수용 물품과 노역을 징발하고 鹽, 鐵, 酒를 전매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는데, 侯摯를 불러 三路를 총괄하게 했다.<sup>87)</sup>

한편,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금조의 宰執들은 시종일관 군무에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sup>88)</sup> 그 원인은 건국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조의 자손과 형제들이 태조, 태종을 따라 정복전쟁을 벌이고 한편으로는 勃極烈에 임명되어 황제와 함께 다스렸는데, 이러한 전통이 상서성 제도가 확립된 熙宗代 이후에도 면면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던 宰執은 거의 예외 없이 여진족 宰執이었다. 희종 때 남송을 정벌하고 회수를 송과의 경계로 정한 左丞相 宗弼, 海陵王의 남정군을 이끌었던 尙書左丞 紇石烈良弼, 世宗 때 남송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휘한 右丞相 僕散忠義, 북방의 초원지역을 정벌한 右丞相 紇石烈志寧, 章宗 연간 북방의 부락에 대한 원정군을 이끌었던 左丞相 夾谷清臣, 右丞相 完顏襄, 夾谷衡, 參知政事 完顏裔, 泰和 6년 송에 대해 용병할 때 좌부원수였던 平章政事 僕散揆와 完顏匡, 衛紹王 때 몽골과 싸워 烏沙堡 전투, 會河川 전투에서 패한 平章政事 獨吉思忠과 參知政事 完顏承裕, 宣宗이 남하한 후 남아서 북경 방어전을 지휘했던 右丞相 完顏承暉와 平章政事 抹撚盡忠, 哀宗 시기 몽골과의 싸움에서 黃河와 더불어 금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던 平章政事 完顏合達, 몽골과의 마지막 전투인 채주 방어전을 지휘했던 尙書右丞 完顏仲德 등이 모두 여진족이었다.

반면, 한족 宰執이 전선에서 군대를 지휘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海陵王 대 尙書右丞 李通이 남벌의 준비 작업에 참여하고 전쟁이 시작되자 左右領軍副大都督으로 참전한 것과 宣宗 대에 平章政事 胥鼎이 平壤, 陝西에 行省을 설치하고 산서와 섬서의 군무를 일임받아 몽골군을 막고 송을 정벌하고, 參知政事 侯摯가 산동의 紅襖賊, 李全, 王汝霖의 반란을 진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예외이다.<sup>89)</sup> 금조의 황제는 여진족에게는 군무에, 한족 宰執은 재정과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宰執 간에 민족에 따른 분공을 했던 것이다.

## VI. 결론 : 변동하는 한족 기용 정책

본 글에서는 금대 한족 재집의 총수를 확정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 한족 재집의 출신, 경력 및 역할을 검토하면서 선행연구의 오류를 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한족 재집의 숫자와 관련하여 선

87) 『金史』, 권108, 侯摯 열전, 2384~2389쪽.

88) 孫孝偉, 「金朝宰相制度研究」의 第4章, 第4節, 「宰相與樞密院(元帥府)的關係」, 164~172쪽 참조.

89) 『金史』, 권108, 胥鼎 열전, 2375, 2378, 2382쪽; 侯摯 열전, 2386~2389쪽.

행연구의 사료해석의 문제를 지적하고 金代 漢族 宰執의 총수는 44명이었음을 밝혔다. 출신을 본다면 금 전기 이래 요의 고지 출신, 특히 燕雲 출신의 진출이 두드러지지만 유독 海陵王 代에는 옛 북송지역 출신의 숫자가 燕雲 출신에 비견할 만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해릉왕 시기 북송 출신의 재집이 많아진 원인은 海陵王은 南征을 위해 중원과 송의 사정에 밝은 관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위소왕 시기 이후 눈에 띄게 요의 故地 출신이 급감하고 송의 故地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한 원인에 대해 금대 과거제의 정착에 기인한다고 하는 선행연구의 결론은 통계상의 잘못에 기인함을 지적했다. 필자는 그 원인은 금이 燕雲 출신 사대부들을 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이 연운지역을 장악하자 연운 지역의 엘리트들이 몽골의 금나라 공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의 강역이 중원지역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 지역의 실정에 익숙한 송의 고지 출신 인사들을 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족 재집의 경력은 세종 시기를 전후하여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세종 이전의 한족 재집은 주로 송, 요의 관료출신으로 여진 엘리트들이 생소한 조정 의례나 외교상의 의전 방면의 전문가이거나 漢地를 경영하던 行臺尙書省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세종 이후부터는 재집에 임명되는 사람들의 경력이 정형화되는 경향이 등장했다. 金이 설치한 과거의 進士 출신으로서 尙書省에서 尙書와 司官으로 근무하면서 황제 및 宰執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주로 宰執에 임명되었다. 또한 금조의 통치자들은 국민의 대다수를 점할 뿐만 아니라 제국의 세원이기도한 漢族의 민생 문제에 밝은 戶部 출신이나 재정전문가들을 재집에 기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필자는 재집의 경력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사관의 경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은 점을 시정하고 호부 경력의 중요성에 관해 과소평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종래 재상에 관한 연구에서 민족에 따른 역할의 분류에는 언급이 부족했는데, 필자는 재집에 등용된 다음에도 한족 재집이 맡은 역할은 이들이 재집이 되기 전까지 경력을 쌓았던 방면에서 돋보였음을 지적했다. 정강의 변 이후 徽宗과 欽宗을 따라와서 포로생활을 하다가 도망쳐 송나라로 귀환했던 趙子砥는 자신의 견문록인 「燕雲錄」에서 金朝에서는 “兵權과 錢穀이 있으면 우선 女眞, 다음에는 渤海, 다음으로 契丹, 다음으로 漢兒를 기용했다”라고 했다.<sup>90)</sup> 금조 전 시기를 돌이켜보면 趙子砥의 주장은 절반만 맞은 셈이었다. 금조는 비록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에는 여진족을 임명하였지만, 錢穀을 포함한 재정문제는 漢族 宰執를 기용해 맡겼다.

비트포겔은 일찍이 중국을 정복했던 민족이 중국에 동화되었다고 주장하는 통설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다. 그에 따르면 요, 금, 원, 청 등 이른바 정복왕조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복한 중국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경제활동, 사회구조, 풍속, 종교 등을 유지함으로써 제국의 각 방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공생관계가 형성되었다.<sup>91)</sup> 금의 경우 여진인들 사이에서 여진문자를 이용하고, 여진식의 복장과 두발, 성씨를 유지하고 한족과의 통혼을 금하는 정책이 추진한 점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sup>92)</sup>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바대로

90) 『三朝北盟會編』, 권98, 13쪽(상권, 725쪽(상해고적출판사, 2019)).

91) G. L. Ulman, *The Science of Socie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Life and Work of Karl August Wittfogel* (Hague: Mouton Publishers, 1978) pp.232-233.

92) Karl August Wittfogel, *Feng Chia-sheng,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Lancaster Press, 1949) p.8.

금제국의 통치자들이 한인 재집의 숫자를 여진족 재집에 비해 소수로 제한하고 한인 재집의 역할을 한인의 통제, 한인으로 부터의 자원의 획득, 한족 왕조의 외교나 의전상의 지식의 활용 등의 방면에 제한하고 있는 점도 금의 정복왕조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성규 등(역), 『國譯 金史』, 단국대학교출판부, 2016.
- [元]脫脫, 『金史』, 北京: 中華書局, 1975.
- 『宋遼金元明六史補編』,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 [金]元好問 著, 張靜 校注, 『中州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1975.
- [元]劉祁, 『歸潛志』, 北京: 中華書局, 2007.
- [宋]徐夢莘 著, 『三朝北盟會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9.
- 이계지(저), 나영남·조복현(공역), 『정복왕조의 출현, 요·금의 역사』, 서울: 신서원, 2014.
- 陶晉生, 「金代의 政治衝突」,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43本 1分, 1971.
- 三上次男, 「金朝初期의 三省制度」, 『金代政治制度의 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 三上次男, 「金朝における女真人外戚의 政治·社會的地位」, 『金代政治制度의 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 三上次男, 「金代における尙書省制度とその政治的意義」, 『金代政治制度의 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 三上次男, 「金朝における女真人外戚의 政治·社會的地位」, 『金史研究(三): 金代政治·社會의 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1973.
- 孫孝偉, 「金朝宰相制度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 沈圓圓, 「選擇之後-金朝南人文士의 心靈世界」, 山東大學 碩士論文, 2018.
- 梁錦秀, 「論金代漢族宰相高汝礪」, 『民族研究』 1998年 第2期.
- 王德朋, 『金代漢族土人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 劉浦江, 「金朝의 民族政策與民族歧視」, 『歷史研究』, 1996年, 第3期.
- 劉浦江, 「說“漢人”-遼金時代民族融合의 一個側面」, 『民族研究』, 1998年 第6期.
- 張博泉 等, 『金史論稿』 卷2, 吉林文史出版社, 1992.
- 張中政, 「漢兒, 簽軍與金朝의 民族等級」, 『社會科學輯刊』 26期(1983年 第3期).
- 陳昭揚, 「征服王朝下의 土人-金代漢族土人의 政治, 社會, 文化論析」, 臺灣: 國立清華大學 歷史研究所 博士學位論文, 2007.
- 陳昭揚, 「金代漢族土人의 地域分布-以政治參與爲中心의 考察」, 『漢學研究』 卷26 第17(2008.3).
- 侯震, 『金末漢人宰執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 이 논문은 2021년 2월 10일에 투고되어,  
2021년 3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4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4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 Abstract |

##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Employment of Han Chinese Officials in the Jin Dynasty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Prime Ministers' (*zaiji* 宰執) Group -

Yoon, Wook\*

In this article, the total number of Han Chinese prime minister of the Jin dynasty was investigated, and the changes in their geographic origin, career and role over time were reviewed. The total number of Han Chinese prime ministers in the Jin Dynasty was 44. In terms of geographic origins, the prime ministers from the Yanyun area, which had produced not a few Chinese founding fathers of the dynasty, occupied the mainstream until the Zhangzong period. An exception was the King of Hailing period, when Chinese officials from prestigious Northern Song families were often appointed as prime ministers to help conquering the Southern Song. After the King of Weishao period, the number of people from Yanyun markedly decreased, and instead, the majority came from the former Northern Song territory. This had to do with Mongol's domination of the Yanyun area and the fact that Yanyun's Han Chinese elites actively contributed to the Mongolian conquest of North China.

The career of han officials who would become prime ministers changed around the Shizong period. Before the Shizong period, the Han prime ministers were primarily former officials of the Song Dynasty or the Liao dynasty, and were experts in court etiquette and diplomatic rituals which were unfamiliar to the Jurchen elites. Before their appointment as prime minister, they also often worked in the organizations that administered the areas whose population was mostly Chinese. From the time of Shizong, a pattern began to appear in the careers of those appointed as prime minister. Prime ministers were mainly those who had obtained the *jinshi* degree through the civil examinations established by the Jin dynasty, and who had worked as clerks or (and) officials in the Department of State Affairs (*shangshusheng* 尚書省) and had developed close relationship with the emperor and prime ministers. In addition, the rulers of the Jin dyansty preferred to appoint as prime minister financial experts of the Ministry of Revenue (hubu), who

---

\* Associate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were well aware of the welfare of the Han Chinese, who not only made up the majority of the people but also were the tax source of the empire. Even after their appointment, Han Chinese prime ministers were remarkably active in the fields of finance and Han Chinese people's welfare.

**[Keywords]** Jin dynasty, Han Chinese, prime ministers (*zaiji*), Department of State Affairs (*Shangshusheng*), Yanyun

